

# 애니메이션 「물란」의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성 연구

Study on family-oriented female heroism in animation 「Mulan」

**조필호**

부천대학 광고디자인과 겸임교수

**Cho pill-ho**

Bucheon College Department of Advertising Design Adjunct Professor

**최인숙**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

**Choi in-so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Culture Department of Design Professor

## 1. 서론

## 2. 여성영웅의 등장배경과 유형

- 2-1. 남성중심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 2-2. 여성영웅의 유형

## 3. 「물란」의 작품분석

- 3-1. 자아발견의 욕망
- 3-2. 프롭의 서사구조 분석
- 3-3. 가정지향적 영웅성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물란」은 동양의 이야기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 연구는 여성영웅을 유형화하는 논문으로서 물란에게서 나타나는 가정지향적 영웅성을 분석하였다. 작품 분석에 앞서 여성영웅을 단지 캐릭터의 활약상이나 시각적 분석으로 접근해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영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영웅의 등장배경에 대한 기존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사회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여성영웅을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과 욕망을 통해 애정지향, 가정지향, 도덕지향으로 나누고 여성영웅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어 작품분석을 위해 서사구조 분석틀을 도입함으로써 원시동화로부터 오늘날의 애니메이션에 까지 적용되고 있는 서사적 특징이 인간정신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는 점과 예외적인 양상의 공존을 분석해보았다. 여성영웅에게 있어 고난 모티프와 함께 녹아있는 것을 자아발견의 욕망으로 정의하고 물란의 자아발견의 욕망과 그것이 어떻게 작품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물란의 영웅성을 유형화함에 있어 가정지향적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작품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가정, 국가를 구조화하여 여성의 지향가치에 의해 여성영웅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영웅을 유아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판단하려는 일련의 단면적이고 관습적인 시각에서 다면적이며 탈관습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물란, 여성영웅, 가정지향

### Abstract

「Mulan」 is one of the oriental stories, and is especially concerned with female heroism among them. Family-oriented heroism of Mulan was analyzed to materialize heroines with a view to ser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ations of approaching heroism by their achievements or visual analysis, heroin fictions and movie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ocial backgrounds where heroins appear. Through these analyses, it is found that the appearance of heroins involves a change or fall of the male-dominant ideology, and it can be regarded as a social phenomenon that the appearance of heroin is accompanied by a soc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conflict with the world appearing in the course of hardships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a individual, a family, and a nation by means of materialization of heroins,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heroines according to those categories can be understood with the three materialize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by introducing analytical framework in narrative structure for analyzing literary works, followings were analyzed; the fact that narrative characteristics which applied from primitive fairy tales to modern animations are one of the substantial traits of human spirit, and coexistence of exceptional aspects. The things that exist with suffering motif in heroines were defined as a desire for self-discovery, and Mulan's desire for self-discovery and the way it is presented in those literary works were examined. Lastly, those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determined as family-oriented traits in materializing the heroism of Mulan was studied through work analysis. Heroins can be materialized by women-driven values through structuring an individual, a family, and a nation, and this study presents a possibility of multilateral and non-customary approach breaking from a series of mono-lateral and customary views which look upon a hero as a being, both childish and visual.

**Keyword: Mulan, Female Heroine and Family-orientated.**

## 1. 서론

미국의 문학평론가인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는 슈퍼맨의 작가가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적 영웅성을 슈퍼맨을 통해 투영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sup> 영웅은 이처럼 세계사 속에서 정치인의 모습, 병자를 돌보는 모습, 장군의 모습, 탐험가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 등을 투영하며 역사에 새겨졌다. 설화와 민담은 신화 속의 영웅을 문학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주제와 소재로써 다루어져 왔다. 20세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애니메이션 역시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영웅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본 연구가 「물란」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영웅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남성영웅을 다룬 작품과 서사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성이 상대적 존재, 남자에게 있어서의 의타적인 존재, 비본질적 타자 등으로 의식되던 상황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마저 극복해낸다는 차원에서 남성이 영웅성을 형상화하는 관습과는 다른 영웅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이 겪는 고난 속에서 주인공의 지향가치를 향한 욕망의 세계가 성취되며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성영웅의 형상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 2. 여성영웅의 등장배경과 유형

### 2.1.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과 여성영웅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은 것은 여성영웅소설이다. 소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것은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된, 일정한 시간적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시간예술이며, 시작과 중간 그리고 결말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이 내러티브 예술<sup>2)</sup>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여성영웅소설의 등장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통해 여성영웅이 가지는 공통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영웅소설을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신

화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주인공의 일생을 고난과 극복의 반복된 전개원리에 따라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양상과 성격, 그리고 극복에는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분하여 작품 속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sup>3)</sup> 이처럼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고난의 의미와 극복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영웅의 형상화 특징을 알 수 있다. 국내 여성영웅소설은 19세기를 전후로 널리 읽힌 소설 유형이다. 이 시기는 조선 사회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첫 째는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상업의 확대에 따른 화폐경제의 발달이고, 둘째는 신분간의 강고한 장벽이 흔들리면서 계층 간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사항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나, 신분의 상승과 하강은 결국 경제적 재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생산력의 증가와 그로 인한 생산관계와의 불일치라고 말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19세기에 널리 읽혀진 여성영웅소설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씨전」<sup>5)</sup>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부된 작품으로서 불평등한 부부관계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가족 구조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 갈등을 박씨가 주체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1) 레슬리 피들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김성곤, 『영화로 보는 미국-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의미』, 살림, 2003, p.91.

2) 조미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서사 연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2004, p.16.

3) 신화적인 영웅이 운명적인 성격을 띠고 고난과 극복의 반복된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고난극복은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기수, 「영웅소설연구: 유형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5, pp.2-3.

4) 김수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형식과 사회적 의미」, 동국대 대학원, 2000, p.15.

5) 「박씨전」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 째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양상으로 박씨가 시집을 온 후, 비루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천대를 받는다. 박씨는 남편에게서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갈등은 피화당이라는 곳에서 여성으로서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자의식의 각성을 통해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된다. 그러자 남편 이시백은 그 전과는 달리 박씨를 사랑하게 되고, 박씨는 감춰진 미모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한다. 두 번째로 사회와의 갈등이다. 조선시대는 여성에게 있어서 자유가 극도로 봉쇄된 사회였다. 하지만 박씨는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임금에게 대비를 하게 한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박씨는 공업을 세우게 된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여성의 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던 사회상을 반영한다. 강민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4, pp.11~24.

한편으로 「홍계월전」<sup>6)</sup>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능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 중의 대표 작품으로 들 수 있다. 홍계월은 어려서부터 남복을 함으로써 남성 보다 뛰어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신분이 훨씬 유리하다는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박씨전」과 「홍계월전」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영웅의 행위 속에 사회재생의 심원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은 군담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 이데올로기를 위기 끝까지 몰고 간다. 위기의 끝에 다다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처한 위기 들이다. 적극적인 여성들이 남편과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국가의 위기마저 극복해 낸다.

여성영웅소설은 단순히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성의식이 반영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성영웅소설과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축은 축소하고 가정 축이 더욱 강조되어 정치적 갈등은 약화되고 가정적 갈등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영웅적 행동은 남성영웅이 해왔던 나라를 다스리거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 이외에 제도적으로 부딪히는 사회적 제약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남편과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킨다.<sup>7)</sup> 이처럼 여성영웅은 남성영웅과 서사방식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배경과 의미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본 연구는 남성 중심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여성영웅의 등장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여성영웅의 등장이 사회적인 변혁의 시대를 열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영웅영화 속에서는 어떠한 배경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6) 강민화는 「홍계월전」 역시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 여성 영웅성을 해석하고 있다. 첫째로 가정 안에서의 갈등양상이다. 홍계월은 남복으로 자란다. 계월과 보국은 전쟁을 통해 공업을 쌓는다. 하지만 여성임이 밝혀지고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결혼하게 된다. 계월은 남성에게 약속된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독립된 공간과 자아의 공간으로서 남녀의 평등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획득한다. 둘째로 사회와의 갈등양상이다. 유교가 사회의 중심이었던 사회가 신분제의 동요와 실학, 새로운 종교사상 등의 영향으로 여성으로서의 운명론과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당위론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홍계월전은 무능한 남성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천자가 황성이 점령당하자 항복을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계월은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이다. 강민화, 위의 논문, pp.37~45.

7) 최선영, 「여성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997, p.7.

지 살펴볼 것이다. 19세기의 서구사회는 근대적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중이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이때 문화는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며, 모더니즘 작가들은 예술의 자율성과 고유성, 미학적 실험을 핵심 이데올로기로 내세움으로 고급 예술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게 되고, 한편 대중문화는 모더니즘의 타자로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였던 여성이 산업화의 여파로 글을 배우게 되며 문화 향유층으로 급부상한다는 점 때문에 지적, 예술적 존재로서 열등하다고 인식되었던 여성과 저급하다고 비판 받아온 대중문화가 항상 결부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대중문화의 성장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서 시각적 지배력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은 어두운 극장에서 몰래 훑쳐보는 시각 쾌락층의 맥락에서 더욱 몰락된 형태로 놓이게 되었다.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상상과 환영을 충족시키는 타자로서 남성을 위한 기표였으며, 고급예술과 대중문화로 이분화되었던 것처럼 남성은 시선이 되고 여성은 이미지로 이분화되는 구도 속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노출자로 전시되었던 것이다.<sup>8)</sup> 이렇듯 할리우드 역시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여성이나 소수 민족을 배제한 오랜 사회·문화적 배경을 역사 속에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백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영화를 통해서 여성영웅의 등장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939년 발표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는 스칼렛 오히라를 변화한 가문과 빈곤 속에서 주체적이고 강인하게 성숙해 가는 미국의 여성으로 그려낸다. 북부의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꿈같은 평화와 승리만을 고대하던 남부는 변화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부를 이끌어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것은 남성이 아닌 바로 이들 여성이다. 허약한 남성 예술가를 대신해 남부를 이끌고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개혁의 시작점이 되는 것도 여성인 스칼렛이었다. 여전히 포스터 속에서는 여성을 시각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에는 백인 남성 중심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여성이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남부의 변화와 영화가 개봉된 1939년의 대공황은 시대적 배경으로서 일치하고 있다. 대공황은 남성들의 실패를 의미한다. 스칼렛은 바로 당시의 미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역동적인 동기

8) 테혜숙, 『문화로 접근하는 미국』, 중명, 1998, pp13~29.

부여자이며, 재건의 이미지였다. 서부 개척정신은 몰락했고 새로운 프론티어로 남성은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스칼렛은 이러한 남성에 대한 심판이며, 시대적 변혁기를 열어가는 여성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성영웅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1979년 「에이리언(Alien)」 시리즈와 함께 엘렌 리플리(Ellen Ripley)라는 한 명의 여성영웅이 탄생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주도적 위치로 등장시킨 영화의 효시로 평가되는 페미니즘 SF영화로 분류되고 있다. 광활한 우주 공간과 최첨단의 우주선을 배경으로 하지만 영화를 뒤덮는 음침함은 과학의 발전을 주도했던 남성 중심의 사회가 낳은 버려진 사생아와 같이 그려진다. 끈끈한 점액질과 질퍽한 액체로 가득 찬 LV-혹성의 내부는 여성의 자궁을 연상케 하며, 여성의 몸을 통해 세계는 정복되어질 위협에 직면한다. 영화는 이처럼 남성중심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새로운 여성영웅을 제시한다. 화물선의 항해사인 리플리는 남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실패한 남성들을 승무원, 군인, 죄수의 사회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에이리언이 처음으로 인간의 안전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에어록이 열리는 과정에서 과학적 유용성을 생각했던 남성세계와 모두를 위한 안전을 생각했던 리플리의 세계관은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세계관을 투영하며, 남성이 주도한 결과로 실패로 지적한다. 리플리와 협력적 관계를 맺는 조력자가 혹은 남성들과 로봇들로 대치되는 것 역시 백인 남성의 철저한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SF영화이지만 근대적 과학 기술주의로 표상된 백인 남성 위주의 근대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제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리플리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백인 남성의 억압에서 소생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성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sup>9)</sup> 이처럼 국내여성영웅소설과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할리우드의 영화 속의 여성을 통해 여성영웅의 형상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성영웅의 등장배경이 남성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할 때 여성영웅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며, 사회적인 변혁까지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남성영웅과의 등장배경이나 특징과는 차별적 양상을 보여준다.

## 2.2. 여성영웅의 유형

여성영웅의 등장배경과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9) 테헤숙, 위의 책, pp127~141. 내용참고.

「박씨전」, 「홍계월전」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이리언」을 통해 여성영웅의 등장배경과 여성영웅이 열게 되는 사회적 변혁기를 살펴보았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여성영웅을 통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설에 있어서 여성영웅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동일은 주인공의 능력과 초월계의 개입정도에 따라, 박일용인 주인공의 지향가체에 따라, 서대석은 적대자의 정체에 따라, 임성래는 줄거리 전개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sup>10)</sup> 본고는 고난의 원인을 기준으로 한 안기수의 유형분류를 따르고자한다. 이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개인, 가정, 국가의 고난을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서 주인공에게 지향가치를 가지게 함으로 영웅성을 획득하며 고난 모티프<sup>11)</sup>의 유형에 따르는 고난 극복 과정을 고찰하여 여성영웅을 유형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수립하겠다.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의 서사방식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나 갈등구조는 차이를 가진다. 서사구조의 동일함 속에서 여성영웅의 갈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성에게 주어진 고난의 모티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양상을 개인, 가정, 국가로 나누고 이를 세 가지 구조로 유형화한 분류 기준으로 여성영웅의 유형별 특징 가운데 가정지향적 영웅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sup>12)</sup>

여성영웅의 유형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개인에 대해 고난과 지향가치를 보이는 유형을 애정지향적 유형, 개인과 가정에 대해 고난과 지향가치를 보이는 유형은 가정지향적 유형,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대해 고난과 지향가치를 보이는 유형을 도덕지향적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유형 분류는 이처럼 고난과 지향가치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품 분석을 위한 유형의 분류는 작품에 나타난 인물행위의 통일적인 원리를 규명하게 함으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인물행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유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하지만 작품 속에 해체되어 있는 행위를 세 가지의 유형이라는 틀로 묶으려는 과정에서 그 개별적

10) 안기수, 위의 박사논문, p.17.

11) 모티프라는 용어는 구성 전체 또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포함하지 않고, 다만 그 자체로서 내용이나 상황과 관계가 되는 요소를 구성하는 테마의 소단위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고난에 대한 소단위를 모티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Ulrich Weisstein, 이유영 역, 『비교문학론』, 홍성사, 1982, p. 167. 재인용.

12) 유형 분석은 작품에 나타난 인물행위의 통일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인물행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내적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기수, 위의 박사논문, pp.16~20. 내용참고.

가치를 매몰시키지 않고 유기적 체계로 결합하여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규명하려는 유연한 시선이 유형화에 있어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애정지향적 유형은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이 개인의 영역에 있을 때 분류하는 영웅의 유형이다. 남녀 주인공이 친정연분으로 어린 시절에 정혼을 맺거나 정혼이 문제시 되어 혼인 이전에 발생하는 온갖 고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애정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유형이다. 남녀 주인공 간에 신물(信物)이 주어지며, 만남--->헤어짐(고난)--->재회(행복)의 구조를 가지는 애정지향 유형은 가정지향 유형과 도덕지향 유형과는 다른 결연담을 보여준다. 가정·도덕지향 유형에서의 결연이 단순히 주인공의 수평적 관계형성에 따른 삽입에 불과하다면 애정지향 유형에서는 결연 문제가 주인공의 고난이자 이의 해결이 지상 목표가 되어 진다. 애정장애는 이러한 결연을 위한 남녀의 결합에 따른 갈등과 해결의 과정에서 흥미를 산출하는 모티프로서 기능한다. 영웅담은 결연담과 함께 입공담을 포함한다. 애정지향적 영웅 역시 입공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유형의 지향가치는 개인에 있기 때문에 신분상승은 애정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의 필요한 조건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을 애정의 대상자를 획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sup>13)</sup>

가정지향적 유형은 개인과 가정을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영웅의 유형이다. 고난과 극복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가정지향적 영웅의 특징은 출생담 속에 가족 이산의 고난을 겪는 다는 것이다. 이 고난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거나 주인공이 극복할 수 없던 시기에 발생하며 주인공의 출생을 형상화하고 성격과 의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가정지향적 영웅 역시 입공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지만 신분상승이 지향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가정지향적 유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가정적 억압이라는 고난에 맞서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를 극복하는 서사구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신분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sup>14)</sup>

도덕지향적 유형은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을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할 때 분류하는 영웅의 유형이다. 주인공의 가문몰락이 애정지향, 가정지향 유형과는 달리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주인공은 정적(政敵)의 모함에서 비롯된 가문몰락 과정에서 적대세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된다. 도덕지향적 유형의 주인공은 초월적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구원자가 주인공에게 초월적 능력을 전수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신물(神物)을 부여 받는다. 주인공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범인들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연마해야 하는 문·무 양면에서의 능력을 단시일 내에 터득하는 것이다. 도덕지향적 영웅은 당대의 윤리도덕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옹호하는 경향이 많다. 적대자를 물리치고 기존질서를 회복하려는 지향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난극복의 과정 중 나타나는 고난 전개와 작중 인물과의 관계는 이 유형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 주인공, 국가가 겪는 고난은 힘이 명분을 압도함으로써 빛어지는 혼란된 사회상을 암시하며, 명분과 힘을 겸비한 영웅 인물이 힘을 지배함으로써 도덕적 당위가 바로서는 사회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sup>15)</sup>

고난 모티프를 통한 세계와의 갈등 속에서 애정지향적 유형과 가정지향적 유형, 그리고 도덕지향적 유형으로 여성영웅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가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서사화하는 거시적 개념으로써 일원적인 지향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주인공을 가정지향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해체되어 있는 인물의 행위를 세 가지의 유형이라는 틀로 완전하게 분리시키려는 것은 유형 외에 존재하는 개별적 가치가 매몰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바라보는 유연한 시선이 유형화에 있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3. 「물란」의 작품분석

#### 3.1. 자아발견의 욕망

영웅은 관습적으로 개인적인 욕망을 외형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욕망이라는 것이 마치 적대자의 전유물 같지만 지향가치라는 말로 이해하는 순간, 영웅의 욕망은 보다 폭넓은 이해의 단계로 분석에 도움이 된다. 특히 자아발견은 개인적 지향가치에 대한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한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비본질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란의 자아발견 성취를 남성영웅의

13) 안기수, 위의 박사논문, pp.181~221. 내용참고.

14) 안기수, 위의 박사논문, pp.48~102. 내용참고.

15) 안기수, 위의 박사논문, pp.111~145. 내용참고.

자아발견 보다 강화된 차원의 사회적 제약을 극복해야 함을 인정하게 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중국 한나라, 화(花)씨 가문의 무남독녀로 결혼 적령기가 찾아온 물란에게는 혼사장애요소가 있다. 몸단장을 한 물란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가득한 관습 속에서 완전한 타자가 된다. 걸음걸이도 옷도 화장으로 만들어낸 얼굴도 물란이 원하는 자아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욕망과 함께 아버지가 원하는 가치 역시 물란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 1]은 물란의 자아발견의 욕망을 시각화한 두 개의 쇼트로서 얼굴을 좌우로 양분하는 방식을 통해 물란이 처한 현실에 대한 두 개의 자아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중매쟁이에게 갔으나 결코 가부장적 사회가 원하는 여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집으로 돌아온 물란은 사당을 찾는다.<sup>16)</sup> 사당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물란의 노래에 가부장적 가치관의 공간인 사당은 그녀의 두 가지 모습을 잔인하게 비춰내고 있다. 그리고 물란의 얼굴에 가부장적 가치관의 상징인 조상들의 글을 차갑게 새겨놓고 있다. 이러한 물란의 삶 속에 혼족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란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에 자아발견의 욕망이 세어나갈 수 있는 틈이었다. 혼족의 침입으로 황제는 징집명령을 내리고 물란의 아버지가 징집대상이 된다. 두 가지의 삶 속에서 방황하던 물란이 아버지 대신 군에 징집당할 것을 결심하는 순간의 물란 역시 얼굴을 둘로 나누도록 하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아발견은 여성영웅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두 갈래의 길을 사용하는 것을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아버지가 징집명령을 받은 날, 물란이 아버지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림 1] 자신을 발견해 나아가는 물란

은 소녀에서 전사로의 변신이다.<sup>18)</sup> 눈썹, 턱, 입술, 피부에서 남북 후에 물란을 남성으로 그려내기 위한 이미지의 변형을 캐릭터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 3.2. 프롭의 서사구조 분석

서사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프롭(Vladimir Propp)<sup>19)</sup>의 분석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프롭의 서사구조 분석법은 소설이나 영화의 장르상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이용되고 있다. 프롭의 분석법이 현재의 소설이나 영화의 서사구조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서사가 인간정신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라는 점과 극영화 가 원시 동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프롭은 각 캐릭터들의 심리학적 동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러티브 안에 있는 캐릭터의 '기능(Function)'에서 이해관계를 찾는다. 프롭은 민화에서 31개 Function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1단계는 행동들의 묶음으로 여섯 개의 움직임의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 그것은 1~7단계: 준비, 8~10단계: 사건의 심화, 11~15단계: 전이, 16~19단계: 분투, 20~26단계: 회귀, 27~31단계: 인정으로 볼 수 있다. 영웅 애니메이션의 서사구조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8~10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화라고 판단된다. 사건의 심화 안에는 어떠한 행동에 의한 평정의 붕괴와 붕괴에 대한 인지, 그리고 붕괴를 보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유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서사성의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전 단계를 보니 1~7단계는 준비의 과정이고, 다음 단계로는 11단계에 해당하

16) 「물란」에서 사당이라는 공간은 모든 가족에게 있어 독립된 공간이며 가족 공통의 공간이 된다. 사당과 유사한 공간으로 조선후기의 여성영웅소설인 「박씨전」에 피화당이라는 공간이 나온다. 이곳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념이 지배했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 도망한 장소로 박씨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공간이 된다. 나중에 박씨는 이곳에서 허물을 벗고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국가의 일에도 참여하게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 강민화, 위의 논문, pp.13~14. 내용참고.

17) 「포카혼타스」, 「아나스타샤」에서도 두 갈래의 길은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타일적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띄고 있다.

18) 일본 애니메이션의 변신영웅 중에는 소녀가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소녀로서 겪는 자아에 대한 갈등이 변신을 통해 해소되거나 극복되어지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19) 블라디미르 프롭의 「러시아 민화 형태학」은 1928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나, 1958년까지는 이 책의 중요성이 서양에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는 민화가 일반적인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 구조는 옛날 민화나 새로운 이야기 등에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Nick Lacey, 『Narrative and Genre』, palgrave, 2000, p.46.

20) Turner, Graeme, 『Film as Social Practice』, Routledge, 1993, 임재철의 역, 『대중영화의 이해』, 서울:한나래, 1994, p.109.

Function	Description
α	처음상황 가족원들이 소개된다. 영웅이 소개된다. 한나라를 만리장성을 넘은 훈족의 산유와 전국에 발표된 군 집집명령.
1 β	물란과 가정이 소개된다.(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물란) 부재(不在) 가족원 중 한명-영웅이 빠져있다. 훌륭한 신부감이 되어야 하는 물란(아버지를 위해)
2 γ	금지 영웅은 떠나거나 금지사항이 된다. 물란의 가치관은 중국사회에서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3 δ	침입 금지가 깨어진다. 훈족의 침입
4 ε	정찰 악인이 나타나 정보를 수집하려한다. 산유와 그의 매의 눈빛
5 ζ	정보수집 악인이 희생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6 η	속임 악인이 희생자를 속이려한다. 무슈가 조상님들을 속이고 물란의 조력자가 된다.
7 θ	공범 희생자는 속임을 당한다. 무슈와 귀뿔이가 물란에게 출발
8 A	악행 악인이 그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힌다. 산유의 훈족의 침략이 진행되고 있다.
a	필요 가족원들은 영웅을 찾는다. 온전한 여성으로 살 수 있는 것
9 B	숙고 악인의 행동이 폭로되고, 영웅이 나타난다. 자아발견의 욕망 속에서 방황
10 C	수락 영웅이 도와줄 것을 수락한다. 지금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버지를 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인가
11 ↑	출발 영웅이 출발한다. 아버지 대신 물란이 출발
12 D	첫 번째 신적 존재의 Function 영웅은 마법적 존재나 조력자를 받아들여게 된다. 무슈와 귀뿔이가 조상님이 보낸 수호신으로 등장한다.
13 E	영웅의 반응 영웅이 이 존재에게 반응을 보인다. 무슈의 크기를 보고 무시하지만 호의를 받아들인다.
14 F	수여 마법적 물건이 영웅에게 주어진다. 훈련과정을 통해 강하고 지혜로운 군인으로 변화되는 물란
15 G	공간 변화 영웅이 쫓던 대상 가까이 가게 된다. 조각된 출동명령서로 상장군의 무대는 출동한다. 산유에게 패배한 황군의 흔적 발견
16 H	분투 영웅과 악인이 만나 싸움을 벌인다. 산유의 대군을 만나 물란은 지략을 발휘한다.
17 J	증표 영웅이 어떤 증표를 받는다. 검에 바사된 해결책, 무슈의 불
18 I	승리 악인이 싸움에서 패배한다. 산유의 대군을 물리친.
19 K	제거 악행이 바로잡아지고 필요가 충족된다. 상의 무대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물란의 남복이 밝혀짐. 군법으로는 목숨을 지킬 수 없었지만 부대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죄를 치름.
20 ↓	돌아옴 영웅이 돌아온다. 상의 무대는 승전보를 알고 귀환.
21 P	추격 영웅이 추격을 받는다. 생존한 산유를 유일하게 목격하게 되는 물란.
22	구출 영웅이 추격으로부터 구출된다.
23 O	인식되지 않음 도착 영웅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에 돌아온다. 물란의 귀환은 외면당한다.
24 L	근거 없는 주장 가짜 영웅이 나타난다. 상장군이 영웅이 된다.(상에게 욕망은 있었으나 의도한 바는 아님)
25 M	난제 힘든 임무가 진짜 영웅에게 떨어진다. 산유의 공격을 물란이 경고하지만 무시당한다. 산유에 의해 황제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고 고립된다.
26 N	해결 영웅은 임무를 완수한다. 물란은 상의 무대와 함께 지략을 발휘해서 황제를 구한다.

27 R	인지	사람들이 영웅을 알아보게 된다. 황제와 국민에게 물란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국가적 영웅이 된다.
28 E	탄로	가짜영웅이나 악인이 탄로가 난다. 상장군의 무덤함.
29 T	변신	영웅은 새로운 외모를 갖추게 된다. 군복을 벗고 파씨 집안의 딸로 집에 돌아온 물란.
30 U	처벌	악인이 처벌된다.
31 W	결혼	영웅은 결혼하여 왕좌에 오른다. 물란을 상장군이 찾아온다.

[표 1] 물란의 서사구조

는 출발이다. 가령 1~7단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비중이 적거나 제외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할리우드의 다른 영웅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21)</sup> 하지만 여성영웅의 서사구조를 통한 작품분석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은 2단계의 금지이다. 금지는 바로 지배이데올로기이며 여성은 항상 타자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본고의 주제인 여성영웅의 유형을 결정하며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욕망을 관통하여 이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1단계에 해당하는 출발은 영웅성을 획득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서사적 의미를 지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의 출발은 남성영웅의 출발보다 절박하고 여러 가지의 동기가 함께 작용한다. 물란의 경우도 불구자인 아버지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나가게 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지만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속에서 가장은 국가의 명을 따르고자 한다. 물란의 출발에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현숙한 여인일 수 없었던 물란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관객 역시 가지고 있고 비록 남북을 했지만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일 수밖에 없는 물란은 출발을 통해 영웅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9단계인 변신은 영웅이 새로운 면모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물란의 경우는 기존의 영웅들의 새로운 면모가 지니는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남성영웅이라면 망토가 생긴다거나 강력한 무기로 새롭게 되는 경향으로 예상하기 쉬운가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의 지향가치는 입골에 있지 않고 가정의 위기극복이며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황제에 의해 국민적 영웅이 된 순간, 영웅 물란은 화씨 가문의 딸로 변신한다. 이처럼 변신은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을 보다 강화하는 장치로서 서사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프롭의 서사구조 분석은 단순한 분석으로서의 의미이기 보다 영웅애니메

21) 「헤라클레스(Hercules)」, 「이집트왕자(The Prince Of Egypt)」를 동일하게 프롭의 분석법에 의해 적용한 결과, 4-7 단계에 해당하는 정찰, 정보수집, 속임, 공범이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선이 갖는 유사한 서사구조 속에서 여성영웅이 가지는 차별적 양상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 3.3. 가정지향적 영웅성

여성영웅의 유형 가운데 물란은 가정지향적 영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정지향적 영웅은 지향가치를 개인과 가정에 두고 있다. 「물란」과 함께 비교해볼 수 있는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본다면, 「아나스타샤」를 살펴볼 수 있다. 군담이 비교적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성영웅으로 분류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으나 지향가치로서의 유형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살펴볼 의미가 있다.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의 공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황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고아로 자란다. 하지만 아득한 기억 속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여성영웅에게 나타나는 자아발견의 욕망의 공통점이다. 자신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조력자인 드미트리를 만난다. 결국 아나스타샤는 할머니를 만나 자신이 공주임을 알게 된다. 아나스타샤는 개인, 가정, 국가의 지향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나스타샤가 선택한 것은 개인의 지향가치를 지향하는 애정지향적 성향으로 결론을 맺는다. 또 하나의 여성을 주인공을 하는 작품으로 「포카혼타스」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된 후 서양의 열강 가운데 영국은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신대륙을 개척한다. 존 스미스와 영국인들은 그렇게 포카혼타스와 만난다. 말도 통하지 않는 포카혼타스와 존 스미스는 결연담을 보이며 연인이 된다. 하지만 영국인들과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존 스미스는 부상을 입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포카혼타스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을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개인, 가정, 국가의 지향가치 가운데 모두를 선택하는 도덕지향적 영웅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여성영웅을 지향가치로 유형화 할 때 주인공들은 지향가치를 통해 자신의 영웅성을 나타낸다. 물란에게서 발견되는 영웅성의 유형을 본고는 가정지향적이라고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영웅의 유형적 특징인 가정지향적 영웅성을 「물란」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물란이 개인과 가정의 영역에서 겪는 갈등은 자아개념이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개인적인 갈등은 가정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물란의 경우는 가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물란의 욕망의 세계와 대립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

서는 남성에게 간택을 받는 것이 여성의 임무이고 몸단장은 그것을 위한 노력이며, 여성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성에게 간택을 받기 위한 노력뿐이었다. 물란은 이러한 가정의 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지만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물란에게 역시 중요한 지향가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물란의 욕망은 거대한 사회적 가치에 가려 드러나지 못했을 뿐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 자아를 욕망과 이념의 소유자로 정의하는 것은 물란이 당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화(花)씨의 가정이 겪는 고난은 징집명령에 따른 가족의 이산이다. 하지만 물란의 아버지는 이미 전쟁으로 불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의 이산에 대해 물란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한다. 가정지향적 유형이 당하는 고난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불안한 가부장을 둔 환경이 물란의 출생, 성격, 의식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돌아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동양의 가족관이 적용되는 가정의 확장된 형태가 등장한다. 우선 남북을 해야 했다. 물란이 전쟁에 나간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지키려는 것뿐이었지 공을 세우고 자신까지 돌보며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들도 남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물란의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물란의 안전한 귀환은 조상신들의 지향가치가 된다. 조력자가 보내지고 물란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까지가 진정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가정의 범위가 조상신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다. 능력을 함양하고 계속된 고난을 극복하면서 병사로서 준비되어진 물란은 산유의 부대를 전멸시키는 공을 세운다. 입공은 물란의 지향가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확장된 가정의 범위에서 보자면 무수의 지향가치였다. 이처럼 물란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하며 영웅적 능력을 함양하고 발휘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가 주변적 가치로 치부했던 여자의 신분으로 공을 세운 물란에게 가부장제 사회를 대표하는 힘의 정점인 황제가 국민의 영웅으로 물란을 인정해주고 상을 내렸으나 물란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기에 모든 갈등이 해결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정지향의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 황제에게 영웅임을 인정받은 물란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 전리품을 보여드릴 때에는 여느 집안의 딸처럼 아버지의 반응을 살핀다. 여자의 몸으로 이룬 공업이 가문의 명예를 해치는 것으로 보았던 가부장제 사회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물란의 지향가치가 가정에 대해 얼마만큼

방향 맞추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물란은 여성영웅을 유형화함에 있어 개인, 가정, 국가의 고난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을 때, 국가의 고난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지향적 영웅성을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란이 보여주는 욕망의 세계에서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질서의 회복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란을 세 가지의 유형 가운데 가정지향적 영웅성을 지니는 여성영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극복과정을 통해 영웅성을 획득하고 고난과정에서 겪는 세계와의 갈등양상을 개인, 가정, 국가로 나누고 이를 세 가지 구조로 유형화하여 애니메이션 「물란」에 나타나는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성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영웅의 등장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국내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며 여성영웅담을 단순하게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 여성에 대한 인식의 반영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여성영웅의 등장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형이며,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이며, 영웅성의 변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목에 나타나듯이 물란을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으로 분류하였다. 세 가지의 유형별 특징을 이론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가정지향성을 작품과 함께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란」의 작품분석에서 자아발견의 욕망을 통해 영웅에게 금지된 것이 오히려 영웅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발견의 욕망이 물란이라는 인물을 해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프롭의 서사구조 분석은 「물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웅담의 특징을 분석함과 함께 31단계의 행동의 단계들을 구조화할 때, 유형화 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서사구조 분석틀 자체로의 유용성은 작품분석을 위한 것만이 아닌 작품제작에 활용되어질 때, 체크리스트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읽혀지는 이야기구조를 지니는 서사예술은 인간정신의 기본적인 속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른 작품의 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모든 서사구조들이 31단계를 오차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석 틀을 제작과 교육의 과정에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란에게서 어떠한 가정지향적 영

웅성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정지향적 영웅의 특징은 가정, 개인, 국가의 고난을 구조화한다. 물란은 영웅성을 획득하는 순간에 자신이 왜 가정지향적 영웅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란의 행동을 마지막 3장의 작품분석에서 첫째로 자아발견의 욕망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서사구조 분석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가정지향적 영웅성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분석인 것으로 보이지만 세 가지의 분석을 관통하는 물란의 지향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아발견의 욕망을 결정한 것도 물란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지향가지였으며, 서사구조 속에서도 물란의 지향 가치가 분명하여 지는 것을 프롭의 분석틀 속에서 더욱 분명하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본고가 시각적 분석을 제외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물란의 가정지향적 영웅성 연구를 진행한 이유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각적 현상을 이론화 하는 디자인 연구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1998.
- 태혜숙, 『문화로 접근하는 미국』, 중명, 1998.
- 김종엽, 『우리는 다시 디즈니의 주문에 걸리고』, 한나래, 2004.
- 김기홍, 『만화로 보는 미국』, 살림, 2005.
- 유지나, 『여성영화산책』, 생각의 나무, 2002.
- 김성곤, 『영화로 보는 미국』, 살림, 2003.
- Nick Lacey, 『Narrative and Genre』, palgrave, 2000,
- Turner, Graeme, 『Film as Social Practice』, Routledge, 1993, 임재철외 역, 『대중영화의 이해』, 서울:한나래, 1994,
- 조미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서사 연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2004,
- 안기수, 「영웅소설연구: 유형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5,
- 김수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형식과 사회적 의미」, 동국대 대학원, 2000,
- 강민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4,